

이름:		날짜:	
-----	--	-----	--

YM고전읽기 논술 능력고사(초등5~6학년)

[문제1] 제시문 (가)의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관점을 하나씩을 활용해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해보자. (600자 내외)

[문제2] 제시문 (가)의 두 관점 중 하나를 골라 옹호하되, 제시문 (라), (마), (바)에 드러난 현상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해보자. (750자 내외)

(가)

현실주의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되고 중심적인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 사회에는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국가를 처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나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나라가 부당하게 우리나라를 공격하더라도, 그 나라를 혼내줄 수 있는 어른 같은 나라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나라가 공격받지 않으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한 나라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물리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현실주의는 국가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신뢰보다는 불신이 우선한다고 전제합니다. 국제 관계는 협력보다는 갈등과 경쟁이 기본이며,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따라서 국가는 자신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언제든지 다른 국가를 공격하거나, 동맹을 맺거나, 혹은 속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힘센 나라의 주먹 앞에서 정의로움 따위는 중요하지 않죠.

자유주의는 국제 정치에서도 협력과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이성적이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국가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국가 간 약속과 국제연합(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제 사회에 규칙을 강제로 따르게 만드는 이른 같은 국가는 없지만 말이죠.

예를 들어 국제연합과 세계보건기구는 국가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돕습니다. 또 어느 한 국가가 큰 규모의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 세계 곳곳에서 그 나라를 돕기 위해 후원금을 보내거나 구조인력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국가들이 항상 ‘살아남기 위한 경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서로 여행하고, 다른 나라 가수의 음악을 듣고, 다른 나라의 영화를 보며 이해하고 또 교류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사이의 평화가 유지될 것입니다.

(나)

페르시아의 침공을 물리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이후 그리스 폴리스¹⁾ 간의 패권을 놓고 각각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한 뒤 수십 년간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를 펠로폰네소스 전쟁(BCE 431~404년)이라 해요. 여러 폴리스들은 각기 두 동맹에 들어가 보호를 요청하거나 중립을 선언합니다.

한편 델로스 섬 주민들은 본래 스파르타와 동맹이었는데, 점차 중립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델로스 섬을 공격하여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어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보다 유리해지려 합니다. 아테네에서는 사신을 보내 델로스 섬 사람들에게 항복을 권합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있었던 아테네 사신과 델로스 주민 대표 사이의 대화 기록입니다.

아테네 사신: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지 말라는 그대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니 그대 주민 대표들은 신중히 대답하시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오. 힘의 질서를 인정하고 실리를 찾으시오. 인간 관계에서 정의란 힘이 대등할 때나 통하는 말이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강요하고 약자는 이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라오.”

델로스 주민 대표: “저희는 우리를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귀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강대국은 없으며 귀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본보기가 될 날이 올 테니까요.”

아테네 사신: “우리는 그런 일어날 지도 모르는 일에 의기소침해지지 않소. 스파르타나 페르시아 같은 남을 지배하려는 국가에 정복당하는 것은 두렵지 않소. 오히려 지배하던 국가가 고개를 쳐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두려운 것이오.”

1)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도시 국가

멜로스 주민 대표: “그대들이 우리를 지배하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실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아테네 사신: “당연히 이익이 있소. 그대들은 항복해서 화를 면하고 우리는 살육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멜로스 주민 대표: “그런 강요는 정의롭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테네에 호의적인 중립국으로 놔둘 순 없습니까?”

아테네 사신: “그대들의 호의는 오히려 적대감보다 위험하오. 아테네는 그리스 최강의 해양 제국으로 대부분의 섬과 해안 도시를 정복했는데, 멜로스라는 작은 섬에 예외를 둔다면 동맹국이나 주변 적들이 뭐라 생각하겠소? 그대들의 호의는 우리가 약하다는 징표로 보이고 적의는 우리가 강력하다는 증거로 보일 것이오.”

멜로스 주민 대표: “우린 속국도 아닌데 이렇게 대하면 그대들의 속국들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아테네 사신: “그대가 힘이 없어 그리 됐다고 생각할 것이오.”

멜로스 주민들은 7백 년간 도시를 지켜준 신들과 도시의 사람들, 그리고 스파르타의 지원에 희망을 품으며 아테네의 섬뜩한 경고를 무시한 채 저항에 나섭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포위 공격이 장기화되면서 굶주림이 극심해지고 아테네가 증원부대를 파견하자 결국 항복하고 말죠. 아테네는 멜로스인들이 조건없이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자를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 넘기고 맙니다.

(다)

지난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렸다.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국 정상 및 대표들은 미래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과 동남아시아 7개국,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등 모두 21개 회원국이 서명했다. 다음은 ‘경주 선언’이라 불리는 공동선언문 중 일부이다.

4항. 우리는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해 회원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16항.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민이 성장과 번영의 기회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경제 참여의 장벽을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경제적 역량 강화를 촉진하며,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PEC의 기존 및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한다.

18항. 저출생, 인구 고령화, 도시화의 가속화로 특징지어지는 인구구조 변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이 포괄적이고 세대 간 정책을 통한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19항. 우리는 에너지, 식량안보, 환경, 극한 기상 및 자연재해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 보다 회복력 있는 아시아 태평양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라)

4년 전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거라고 전망했지만, 어느덧 전쟁은 만 4년을 넘겼고 지금도 좀처럼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접경지 돈바스는 격전지가 됐습니다. 돈바스는 흑해와 맞닿은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이 돈바스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돈바스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하겠다, 돈바스 지역은 원래 러시아의 옛 영토라며 명분도 내세웠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돈바스의 88% 이상을 차지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거세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대로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에겐 영토 확보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적대적인 유럽 국가들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군사 동맹이 야금야금 동쪽으로 전진하면서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유럽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든 전쟁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우크라이나의 영토

가 빼앗겼을 뿐 아니라, 러시아가 여기서 멈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언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군사력과 경제력이 모두 턱없이 부족한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이미 바닥 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4년이나 전쟁을 끌고도 물러가지 못하는 이유와 우크라이나가 4년이나 전쟁에서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엔은 여러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고 군사를 물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지도부와 군사령관들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 수사도 시작했죠. 또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를 실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마)

조조는 술자리를 마련해놓고 위홍을 집으로 초청해 고했다. “지금 한실에는 주인이 없고 동탁이 권력을 독점해 군주를 속이고 백성을 해치니 천하가 모두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저는 힘껏 사직²⁾을 지탱하고자 하나 힘이 부족한 것이 원통할 따름입니다. 공께서는 충성과 의리가 있는 선비이시니 감히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홍이 말했다. “저도 그런 마음을 품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영웅을 만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었소. 이미 맹덕³⁾께서 큰 뜻을 품었으니 오히려 저의 재산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바요.”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이에 먼저 조서를 만들어 급히 각 방면으로 전한 다음 의병을 모집했는데, ‘충의⁴⁾’라는 두 글자가 적힌 백기를 세웠다. 여러 날이 못 되어 응모하는 군사가 소나기처럼 몰려들었다.

… 중략 …

이때 원소는 조조가 보낸 조서를 받고는 이에 휘하 문무관원과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발해를 떠나 조조와 동맹을 맺으러 왔다. 조조는 격문을 지어 모든 군에 전달했다.

“이 조조 등은 삼가 대의로써 천하에 포고하노라. 동탁이 하늘을 속이고 땅을 기만하여 나라를 망치고 황제를 시해했으며, 궁궐을 난잡하게 만들고 백성을 다치게 했도다. 의로운 군대를 일으켜 함께 공분을 풀고 황실을 보살피며 백성을 구제하길 바라노라.”

2) 토지의 신(社)과 곡식의 신(稷). 국가의 운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조조의 자(字)

4) 충성스럽고 정의로움(忠義)

조조의 격문이 발송된 후 각 제후가 모두 군사를 일으켜 호응했다. 여러 갈래로 나뉜 군마 수가 일정하지 않아 3만 명을 이끄는 사람도 있었고, 1~2만 명인 사람도 있었는데 각자 문관과 무장을 거느리고 낙양으로 향했다.

(바)

노숙이 먼저 주유에게 물었다. “지금 조조가 무리를 몰아 남쪽으로 침범하려고 하는데 화친과 전쟁의 두 가지 책략 중 주공께서는 무엇으로도 결정할 수 없어 장군께 한번 물어보라고 하시오. 장군의 뜻은 어떠하시오?” 주유가 말했다. “조조가 천자⁵⁾로 명분을 삼으니 그의 군사에 대항할 수는 없소. 게다가 그 세력이 거대하여 함부로 대적할 수도 없소.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이나 항복하면 쉽고 편안할 것이요.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소. 내일 주공을 만나 뵈고 바로 사신을 보내 항복의 권유를 수락할 것이요.” 노숙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그대의 말씀은 틀렸소! 강동의 기업이 이미 3대를 이어왔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단 말이오?” 주유가 말했다. “강동의 6군에는 백성이 무수히 많은데 전쟁의 재앙을 입게 된다면 틀림없이 나에게 원망이 돌아올 것이므로 항복을 청하는 계책으로 결정한 것뿐이요.”

... 중략 ...

공명이 말했다. “조조에게 항복하고자 하는 공근⁶⁾의 의견을 심히 이치에 맞는 말이요.” 노숙이 말했다. “공명, 그대마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공명이 말했다. “조조는 지극히 군사를 잘 부리니 천하에 감히 대적할 자가 없지요. 단지 여포, 원소, 원술, 유표만이 감히 그와 대적했을 뿐이지요. 지금 그 몇 사람조차도 모두 멸망했으니 천하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지요. 장군께서 조조에게 항복하기로 계책을 결정하셨다니 처자식을 보호할 수 있고 부귀를 보전할 수 있겠지요. 항위가 바뀌는 것이야 천명에 맡기면 되는 것이니 애석해할 필요가 있겠소!”

(끝)

5) 한(漢)의 황제인 헌제를 일컬음.

6) 주유의 자